

전주 예술계 빛날 신진예술가 6명 선정

전주문화재단, 맞춤형 지원 추진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전주신진 예술가지원사업'의 최종 선정자 총 6인을 선정하고, 이들의 창작활동을 독려하는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올해로 10년 차를 맞은 이번 사업의 선정자들에게는 창작 지원금과 재단 산하 공연장 및 연습장 등의 공간 지원, 일대일 전문가 컨설팅, 비평가 매칭, 홍보 지원 등 다각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전주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은 전주를 연고로 활동하는 만 19세부터 만 44세의 젊은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며, 처음발표지원 유형에 박민지(공연), 조은혜(공연), 하태훈(시각), 디담 발표지원 유형에 고지은(시각), 방우리(문학), 황보석(공연) 등 총 6명이 올해 전주 예술계를 빛낼 신진예술가로 낙점되었다.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담은 전시 '기준점: REFERENCE POINT'를 선보이게 될 하태훈 씨는 전주 신진예술가 지원 사업의 첫 작품 발표 주자로 나선다. '기준점: REFERENCE POINT'展은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교동미술관(전주)에서 진행된다.

바이올리니스트 박민지 씨는 '프루스트 이펙트'라는 제목으로, 소리에도 향기처럼 기억이 있다는 발상에서 착안한 연주회를 기획했다. 조항과 연주, 즉 청각과 후각을 통해 예술적



전주문화재단은 '전주신진예술가지원사업'의 최종 선정자 총 6인을 선정했다.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 무용을 전공한 조은혜 씨의 공연 '놀이: 춤-골목에서'는 희미해진 골목 문화와 '놀이'가 사라진 시대를 무용으로 형상화하여 놀이의 시간을 전달한다.

전북대에서 조소를 전공한 고지은 씨의 전시 'Art Lab_인큐베이팅'은 아트 실험실(art lab)이라는 콘셉트를 기반으로 하는데, 조각 실체를 통해 상상과 실제의 경계를 넘나들며 실험체를 등장시켜 내재한 '혼종성'과 '다양성'을 외표와 형상으로 드러낼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탄생한 문학 분야 선정자 방우리 씨는 미발표 작품 4편과 등단작 <이사>를 묶어 소설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방 작가는 본 사업을 통해 등단 10년 만에 작품집을 묶어낼

수 있게 되었다.

국악기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황보석 씨는 창작 음악 발표회 'Homage & 공존'으로 관객을 만난다. 기존의 국악기와 직접 만든 업사이클링(새활용) 악기 등을 활용하여 전라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민요 선율을 창작, 재편곡하여 들려줄 예정이다.

전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우리 지역 젊은 예술가들을 지역 예술계에 소개하고 미래 예술계를 이끌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전시와 공연, 책 발간 등 신진예술가들의 작품 발표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동문창작소' 입주 작가, 본격 창작 활동 펼친다

전주문화재단, 9명 협약식 가져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의 '동문(東門)창작소' 입주 작가 9명이 협약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시작한다. 동문(東門)창작소는 원도심의 활성화와 지역 내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창작공간이다.

전주 동문거리의 공실을 활용하여 예술인의 창작 공간(작업실)을 조성하고 임대료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 방식으로 기존의 레지던스

(residence) 사업과는 차별성을 가진 신규 사업이다.

입주 작가는 전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공모일 기준) 예술인으로 미술(회화, 공예, 조소 등)분야에서 지속적인 작품 활동이 가능한 작가 9명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9명의 작가는 약 2년간의 입주 기간 동안 작업 공간을 지원 받는다. 또한, 입주 작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창작 공간을 운영하고 사용자 애로사항을 협의하면서 창작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입주 작

가의 작업실 개방 행사(오픈 스튜디오)와 결과 보고회 전시도 계획되어 있다.

동문(東門)창작소는 전주시 원도심인 동문 거리에 위치한 삼안다방(동문길 94) 3층과 4층으로, 창작 공간 9실(12~13평)과 공용 공간(휴게 공간) 1실이 마련되어 있다.

백옥선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지역 교유의 원도심 문화의 확산과 작가의 창작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고창미술작가 창작전시회' 개최

고창군 고창문화의 전당 전시실에서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소외 이복남 작가의 '실로 그린 그림 자수이야기', 오는 29일부터 29일까지 월강 김동훈 작가의 '서예와 문인화의 만남' 등 총 2회에 걸쳐 고창미술작가 창작전시회가 열린다.

(사)한국미술협회 고창지부(지부장 권애란)

가 주관하고 고창군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는 소외 이복남 작가와 월강 김동훈 작가가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작품들로 지역 문화 예술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과 예술인들이 문화예술을 공유하고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고창=김영식 기자



군산시가 12일 군산시립합창단 지휘자에 주광영 지휘자를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감동과 행복 주는 합창단 될 것"

군산시, 군산시립합창단 주광영 상임지휘자 위촉

군산시가 12일 군산시립합창단 지휘자에 주광영(55) 지휘자를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는 지난 3월 공개채용 공고를 통해 전국에 실력있는 지휘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속에 서류, 실기(리허설), 공연지휘, 면접 심사와 합창단원들의 의견을 거쳐 주광영 지휘자를 최종 선정했다.

앞으로 2년간 군산시립합창단을 새롭게 이끌어갈 주광영 지휘자는 경원대학교 음악대학(성악)을 졸업 후 UCLA 대학원 석사(성악, 합창지휘), LCLA 대학원 박사 학위(합창지휘)를 취득했다. 과천시립여성합창단, 송파구립합창단, (사)난과 합창단 등을 통해 음악적 감수성이 풍부하고 섬세한 지휘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세종대학

교 겸임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주 지휘자는 "클래식한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획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주는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합창단원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기량 향상에 최우선을 두고 시민들과는 일상을 함께 할 수 있는 더욱 친근한 합창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상임지휘자 채용으로 한층 더 안정적이고 향상된 합창단의 모습을 기대하며 그동안 쌓아온 높은 기량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원들과 잘 융합해 훌륭한 하모니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시립합창단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찾아가는 진안고원시장 문화예술공연

총 6회 공연·체험 부스·플리마켓 등 운영

진안군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을 찾아가는 '2023 진안고원시장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역점 추진사업 중 진안 문화예술거리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을 찾아가는

특히 군의 중심상권 기능 재생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거리문화 공연을 정착해 군민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마련된다.

첫 공연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진안고원시장에서 개최되며 민요, 대금·바이올린 연주를

비롯해 성악 등 여러 분야의 거리공연이 펼쳐지며 행사장을 찾는 군민들을 위해 체험 부스와 플리마켓도 함께 운영된다.

두 번째는 29일에 이어 9월 14일, 10월 4일, 10월 24일, 11월 9일에 진안고원시장무대에서 10시~14시까지 열리며 대중가요, 전통음악 등 다양한 공연으로 마련돼 주민들을 찾아가는

군 관계자는 "문화공연을 통한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여 시가지의 활발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의 문화접근성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